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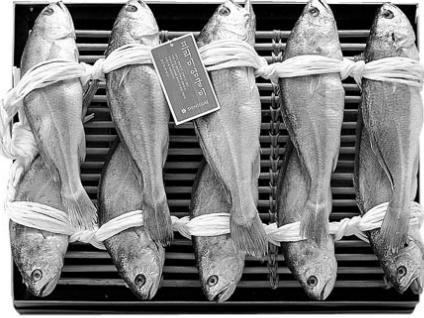
주말경제



온라인·홈쇼핑 설선물 이벤트

민족의 명절 설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에서 설 선물 예약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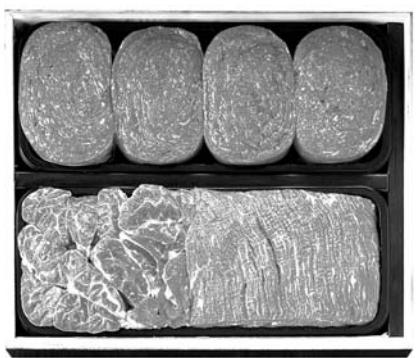
특히 연말부터 이어진 이상한파로 홈쇼핑 인기가 높아지면서 TV홈쇼핑업체들도 예년보다 일찍 설 특집방송에 들입해 고객 마음 사로잡기에 나섰다.



〈프리미엄 참굴비세트〉



〈홍삼정천〉



〈한우세트〉



〈생활용품 세트〉



〈설록 작설증제 다심 세트〉



실속·프리미엄급 '정성 한아름'

생활용품 등 최고 80% 저렴

백화점 판매 선물세트 주문

예약 배송 서비스도 가능

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번 기획전은 다양한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된다.

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설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식품의 경우 25% 할인 쿠폰을, TV 방송 상품의 경우 11% 할인 쿠폰을 즉시 발행해 준다. 설 선물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을 위해 별도의 전화주문 창구를 개설, 추가 적립 금을 증정하는 등의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. 또 CJ카드를 사용 시 5% 추가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.

롯데닷컴은 16일까지 '2011 설 선물 예약 할인전'을 진행한다. 1만원대의 생활용품부터 60만원대의 한우세트에 이르기까지 일반 인터넷 몰과 롯데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주문할 수 있으며 'MD보장 상품전' 최고 30% 할인 상품전' '+1답 상품전' 등 다양한

오픈마켓 11번가는 '설 선물 예약 할인, 배송 서비스'를 16일까지 진행한다. 신선식품·가공식품·생활선물세트 등 4000원대의 실속 선물부터 19만원대의 고가 선물세트까지 인기 설 상품 60종을 최고 60%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. 무료배송과 함께 발송 요청일을 선택하는 '예약 배송 서비스'도 실시한다.

대량 구매시 '최대 5% 적립' '+1 하나 더 증정'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, 50만원 이상 구매한 선착순 110명에게는 구매 금액의 7%를 11번가 포인트로 되돌려준다.

CJ몰도 '2011 설 선물전'을 오픈했다. 기존가 대비하여 최고 80%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설 선

편의점업계도 설 선물 판매 돌입

설을 앞두고 편의점업계도 고급 수산물과 지역 특산품 등 다양한 설 선물세트를 준비하고 판매전에 나섰다.

각 편의점업체는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해마다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작년 설보다 상품군을 늘리고 돌침대, 해외여행 상품 같은 이색 선물도 선보였다.

보광해미리마트는 다음달 4일까지 설 선물세트 277종을 판매한다.

장류 달인인 문육례 씨가 만든 순창고추장,

소주주 명인 우희열 씨의 한산소주 등 명인 상품 외에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세트 상품 39종을 마련했다.

또 '3+1', '5+1' 등 일정 수의 상품을 사면 덤

으로 주는 증정 행사 상품을 전체 상품의 40%

까지 늘렸고, 노인들이 선호하는 돌침대, 7년근

장뇌삼도 준비했다.

GS25는 작년 설보다 87종 많은 447종의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. 이 가운데 올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 선물세트 가격을 최대

특가전을 통해 알뜰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설 선물을 구입할 수 있다.

또 설 전에 책임지고 배송하는 배송책임보장 및 배송알리미 서비스, 롯데백화점 포장, 메시지 카드 발송 등 명절 5대 서비스도 진행한다. 이번 '2011 설 선물대전'은 롯데포인트 사은행 사도 함께 운영되어 더욱 실속 있다.

◇집에서 TV보며 명절 선물 장만=GS샵은 홈쇼핑 명절선물로 인기가 높은 '양념갈비'(LA 갈비 5팩+갈비찌 3팩)를 실속있는 6만원대로 총 5만 세트를 준비했다. 또 굴비(영광), 청송(사과) 꽃감(상주) 등 각 지역의 특산물 상품과, 정관장 홍삼 등 인기 건강선물을 알차게 마련했다.

이밖에 인터넷 쇼핑몰(www.gsshop.com)에서는 이달 말까지 '설 선물 종합기획전'을 열어 다양한 설 상품을 선보이는 한편 최대 72% 할인혜택을 제공한다.

롯데홈쇼핑은 오는 28일까지 '혜택 가득 설마 중 특집방송'을 실시한다. 이번 방송에서는 설 선물 구매로 지갑이 얕아진 소비자들을 위해 명절 상차림 준비에 필요한 접시, 주방칼, 도마 등 주방용품을 사용품으로 증정한다.

/이은미기자 emlee@kwangju.co.kr

19%까지 낮춰 선보인다.

선물용 건강기능식품도 3배 이상으로 늘렸다.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는 5000원짜리 양말세트를 준비하고, 169만원짜리 여행상품권도 선보이는 등 작년보다 15% 많은 247종을 판매한다. 특히 롯데JTB와 손잡고 4만5000원에서 40만3000원대의 국내여행 패키지 8종과 인도 일주 8일 상품(169만원) 등 해외여행 패키지 8종을 마련했다.

아울러 리조트 콘도 회원권과 아웃도어용품, 스마트폰 관련용품도 선물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. 미니스톱은 3만원 미만의 중저가 상품 구색을 작년보다 120% 늘리는 등 200여 종의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.

/연합뉴스

■ 장터 소식

우유 등 PL식품 값 인하

낙지로 맛을 낸 '매콤한 김치낙지 요리죽' 등 3종으로 나왔다. 용량이 200g인 신제품은 1인 분 용기에 담겨 전자레인지에 넣어 그대로 2분간 데우면 바로 먹을 수 있다.

아이섀도 '스파클' 특판

바비브리운은 이달 아이섀도 '스파클 글래머 웨드'를 한정 판매한다.

이 제품은 이 회사 아이섀도 대표색상인 베이지, 골드, 브라운, 그레이 계열을 한 케이스에 담아 스모키부터 화려한 눈화장 표현이 가능하다고 회사는 말했다.

특히 반짝거리는 페인트와 얇은 입자가 주된 특징이어서 눈과 매혹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. 가격 7만5000원.

간편한 '홍삼정타브렛'

풀무원식품(주)은 죽 전문점에서 맛볼 수 있는 고급 냉장 죽 '생가득 요리죽'을 출시했다.

신제품은 전복을 담백하게 즐길 수 있는 '영양만점 전복 요리죽', 새우살과 생크림이 어우러진 '고소한 새우크림 요리죽', 김치와

백화점업계 스마트폰·SNS 확대

롯데, 페이스북 운용

신세계, 쇼핑 앱 출시

백화점업계가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(SNS)를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.

롯데백화점은 14일부터 페이스북에 공식 페이스북(www.facebook.com/LOTTEshopping)를 열고 운영중이다.

앞서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8월 공식 트위터를 열어 2만2000명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50여 차례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다. 롯데백화점은 페이스북에서 브랜드 상품, 디자인 등 쇼핑정보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공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비롯한 대외활동을 심층 뉴스로 전달할 예정이다.

신세계백화점은 모바일을 활용한 쇼핑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

"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!"

과도한 업무, 무한 경쟁압박, 쌓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, 잦은 과음으로 지치고 힘든 나의 간- 이제, 사랑이 필요합니다!

미래의 성공한 인생과 행복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며, 감사하고 사랑합니다!

간장보호기능 생약성분 및 비타민 복합제
리버비타 연질 캡슐